

카메라에 담은 밀재 새벽 풍경

정우성 작가 '사진전 밀재'
내달 28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
"동남아시아 풍경도 담고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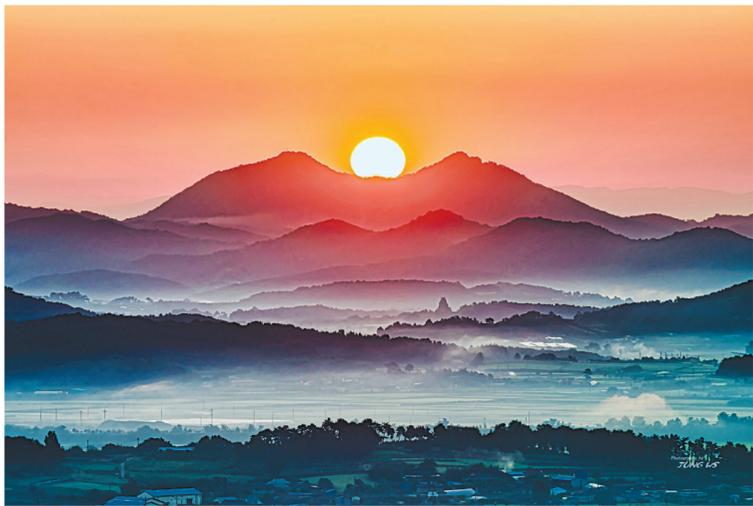


정우성

사진은 묘한 매력이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찰나, 그날의 감정과 분위기 또한 필름처럼 뇌리에 박힌다. 같은 피사체도 사진을 찍는 이에 따라 다르다. 찍는 이가 피사체에 얼마만큼의 애정을 담고 셔터를 누르느냐에 따라 사진은 사뭇 달라진다. 빛의 굴절과 그날 온도와 습도 날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른 세밀한 정성과 시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평 '밀재'에서 바라본 새벽 풍경을 기록한 사진 역시 마찬가지다.

정우성 '사진전 밀재 (밀지에서 본 새벽 풍경)'가 지난 15일부터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밀재'는 함평 해보면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고개다. 왼쪽에는 병풍산이 있고, 중앙으로는 용진산, 오른쪽에는 무등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 신비로움과 아름다운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사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름난 사진 명소로 꼽힌다. 전시 중인 42점의 작



정우성 '밀재#13_용진산 일출'

/작가 제공

품은 사진임이 틀림없지만 그림 같은 느낌을 준다. 주황색으로 물든 하늘 아래 산봉우리의 능선, 그리고 능선 사이에 낀 구름은 운해를 이뤄 동양적인 느낌이 물씬 스며들고 있다.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황홀경 그 자체다. 구름 사이사이 새어 나온 빛살 그림자, 아래로 아득히 어둠이 가시질 않는 도시의 모습은 고요함이 느껴진다. 새벽 풍경은 마치 회화처럼, 동양화, 수묵화, 수채화의 느낌이 난다.

사진전에서 만난 정우성 작가는 '그림 같은 사진'의 느낌을 내기 위해 캔버스에 사진을 인쇄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같은 장소임에도 각기 다른 느낌이나 배경은 계절에 따라 떠오르는 태양의 각도와 위치 그리고 온도와 습도 등의 영향 탓이다. 해가 뜨는 동쪽을 마주한 밀재는 계절에 따라 다른 옷을 입는다. 춘분과 추분에는 용진산에 해가 걸린다. 하지(5·6·7월)에는 병풍산, 그리고 동지(11·12·1월)에는 무등산에 걸린다. 안개와 운해는 일교차와 습도 영향을 받아 세밀하게 점검해야만 한다. 그렇게 8년, 작가는 밀재의 사계절을 담아냈다.

작가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해 뜨기 30분전 촬영 위치에 도착한다. 그리고 해가 뜬

직후 강한 붉은 햇살을 내뿜는 골든아워, 산 능선 사이사이 낀 운해와 아침의 여명까지 모든 순간의 빛과 그림자를 카메라 렌즈에 담아낸다. 해가 완전히 뜬 순간도 더 머무른다.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밀재'를 찾았어요. 최근 2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밀재를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담아낼 수 있던 시간이었죠. 거리에 차도 사람도 다니지 않아 공해가 줄어 카메라에 담아내지 못했던 모습을 찍는 데도 큰 도움이 됐어요. 건물에 비추는 빛 하나하나까지도 어떠한 각도에서 잡느냐에 따라 달라져 전선에 걸린 빛의 굴절 하나까지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사진을 찍는 위치에서 무등산 정상만 하더라도 40km 정도 거리 때문에 보통 600mm의 초망원렌즈를 주로 사용합니다."

정 작가의 본업은 가나토컨 대표다. 광주공고와 조선대 공과대학을 거쳐, 전남대와 목포대에서 공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파킨슨 행복센터를 설립, 환우를 위한 다각도의 봉사도 하고 있다.

사진예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듯하지만 사진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고등학교 앞 카메라 판매점에서 카메라를 빌려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주면서 사진에 매력에 빠져 40여 년을 카메라와 함께 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의 추억을 찍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카메라를 참 좋아했어요. 함평의 숨은 매력을 군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전시 기회를 주신 이상의 함평군수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네요. 앞으로는 우리나라 과거 옛 모습이 숨어있는 필리핀과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의 모습을 찍어보고 싶어요. 진행 중인 수중촬영도 끊임없이 할 거고요. 다른 곳을 찍더라도 밀재는 계속 찾을 거예요. 여전히 찍을 게 많아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시는 내달 28일까지 열린다. /이나라 기자



문화 브리핑

- ◇금호주니어콘서트 '메소소프라노 김유정 독창회' = 20일 금호아트홀(오후 7시 30분)
- ◇청년작가이지수 개인전=20일까지 금호갤러리(오전 10시-오후 7시)
- ◇강행심 작품전- '2022 도월일기' = 20일까지 순천 다다 갤러리(오전 8시-오후 10시)
- ◇가족 뮤지컬 '봄날의 꿈'=20일-23일 북구 청소년 수련관(수·금 오전 10시 30분, 토·오후 2시·5시)
- ◇장재욱 개인전 '비주얼 커넥션 2022' = 22일까지 북구청 갤러리(오전 9시-오후 6시, 주말·공휴일 휴관)
- ◇우림회원전 '오색에 물들다' = 22일까지 자미갤러리(오전 9시-오후 6시 일·공휴일 휴관)
- ◇이머시브 가족뮤지컬 '알피' = 22일-23일 예술마루(금·토 오전 11시·오후 2시)
- ◇비엔날레 미디어파사드 지역작가 작품전&아트클래스=23일 까지 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오후 6시 30분-오후 8시 30분)
- ◇한희원 작가 전시회 To be Or Not to be = 24일까지 예술이백그라운드(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 ◇예술가의 시선-形象(형상)=24일까지 화순군립석봉미술관(오전 10시-오후 6시 월·공휴일·휴관)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내달 15일부터 영화제 공모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과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광주와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제24회 한국청소년영화제 영상작품을 8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공모·접수한다.

공모 부문은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작품으로 러닝타임은 30분 이내다. 주제는 자유이며, 2021년 3월 이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작품이면 된다.

응모 자격은 초·중·고등학생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심사는 전문 심사단(50%)과 청소년 심사단(50%)이 독창성, 작품성, 발전가능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예선 심사 결과는 9월 30일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시상은 전국권역과 전라권역으로 나눈다. 대상 1편(상금 200만원)은 전국권역과 전라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선정하며, 권역별로 최우수상 1편(각 100만원), 우수상 1편(각 50만원), 장려상 3편(각 20만원)을 시상한다.

/이나라 기자

전남대박물관 김자혜 작가 초대전

내달 4일까지 용봉관 기획전시실

전남대학교박물관이 김자혜 작가 초대전 'Walk Into'를 마련했다.

김자혜 작가는 이미지를 해체·분절하고 재구성해 화면에 기하학적인 구조로 중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작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물(나무, 물, 구름)과 고정적 절댓값을 지닌 인공물(건물, 기계, 공산품)로 작품을 구성한다. 나와 세상의 '실재'를 찾아서, 끊임없이 의식의 방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이야기를 그려낸다.

이번 전시에는 친근하면서도 낯선 공간을 그려낸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작품마다 다양한

순간과 시점의 차이로 만들어진 여러 층(Layer)이 표현되어 있는데 순간을 공간으로 기억하게 만든다.

익숙한 풍경이 조각난 화면으로 그려져 낯선 공간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복잡하면서도 흥미롭고 불가사의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김 작가는 홍익대 회화과와 동대학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올해는 청주 대정호미술관에서 '물의 호흡' 전시를 했고 지난해도 서울 팔라보하우스도산과 셀로아트에서 3차례의 전시를 가졌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무더위로 지친 여름, 문(gate)을 열고 여러 공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여행과 같은 전시를 통해 다채로운 세계를 꿈꾸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자혜 'clouded tree'

전시는 8월 4일까지 용봉관(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운영된다. /최진화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